



해양강국 업그레이드 바쁜 여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어떻게 돼 가나



88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과 함께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되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07년 11월 세계박람회 개최권을 확보한 뒤 1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공포와 함께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엑스포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종합기본계획안이 발표되고, 박람회장 및 관련 전시시설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도 차분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주요 전시관별 현상공모가 본격 추진되는 등 박람회장 부지조성과 전시관 건설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쿠아리움과 콘도 등 민자유치 사업이 잇따라 '불발'되고, 조직위원장까지 사퇴하는 등 성공 개최 준비에 '걸림돌'이 생기면서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유치 대상국·국제기구에 사절단 파견

◇참여국 현황 및 참여 홍보활동=조직위는 100개 국가 5개 국제기구 유치목표로, BIE(세계박람회 기구) 회원국 152개국 및 26개의 국제기구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올해 1월부터 참가 교섭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참가 통보를 해온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에맨·리비아·터기 등 중동 국가를 비롯한 일본·파나마·우크라이나·가이아나 등 9개 국가다.
국제기구로는 OECD가 가장 먼저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조직위는 이달 중 국내외 종합홍보마케팅대행사를 선정하고 국내외 박람회 개최 붐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참가유치 활동은 외교통상부 대외협력본부 해외유치과와 국제협력과에서 유치 노력을 벌여왔지만, 조직위는 이달 중 참가유치 활동과 함께 참가국 정부대표와 참가계약 체결 등을 수행할 박람회 정부대표를 선임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UN 등 중점 유치대상 국가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주요 다자회의를 활용하여 참가교섭을 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조직위는 내년 5월까지 참가국을 확정할 생각이다.

전시관 등 현상공모... 올 12월 착공

◇주요 전시관 등 기반시설 조성 본격 착수=조직위는 이달까지 박람회장 공원조성사업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해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원 조성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전시관별 현상공모도 이달부터 추진된다.

조직위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국내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시관의 사업규모 및 발주 방식 등을 소개하는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조직위는 이 자리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인 명품 전시관 건립을 위해 국내외 유명 건축가도 초청했다. 조직위는 이달 말에 현상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올 10월 당선자를 선정해 실시설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람회 주제구현을 위한 핵심공간인 빅오(BICO)와 다도해공원은 공사기간 단축과 신기술 및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탄키사업으로 추진하고, 오는 7월 입찰공고를 통해 올 연말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전시관 등 주요시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 부지조성을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이주민 보상·민자유치 걸림돌

◇이주민 반발, 민자유치 등 성공개최 '복병'=여수 엑스포타운 사업 예정지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주민들은 선 이주대책,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직위 측이 뚜렷한 이주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재정착할 주택단지 조성과 공사기간 중 살 곳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보상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여수시 덕충동 일대 53만여㎡ 부지에 아파트 1천250가구와 주차장을 조성, 엑스포행사 때 종사자 숙소 등 '여수엑스포타운'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잇따른 민자유치 실패도 여수 엑스포 성공개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자유치에 실패한 박람회장 필수시설인 아쿠아리움의 경우 재정적으로 전환해서 짓기로 확정했지만, 호텔과 콘도 등의 민자유치는 아직도 더딘 상태다. 조직위 측은 지난 16일 열린 여수엑스포 전시관 건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민자유치 부문도 설명하는 등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현섭 여수시장도 최근 직접 대기업 등을 방문해 사업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호텔 사업자에게 '노른자' 아파트 부지를 분양해주겠다는 '특혜'까지 부여하겠다는 유인책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불황 등이 이어지면서 민자유치가 조만간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제 비즈니스 자질 갖춘 위원장 뽑아야”

김병일 조직위 사무총장



김병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계획을 준비하는 업무를 추진했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전시행사나 문화행사를 박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업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총장은 “오는 5월 중 여수 해양항만청 내에 조직위 여수사무실을 개소하고 서기관급 직원 1~2명을 파견해 지역민 여론 수렴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장승우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이 최근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위원회를 진두 지휘하고 있다.

그는 후임 조직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신임 조직위원장은 2012년 박람회 개최와 사후 관리 때까지 앞으로 4년간 중단 없이 위원장을 수행할 분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신임 위원장 선출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제 비즈니스적 자질을 갖춘 인사가 선출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수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민자유치와 호텔 건설, 시내 도로 개설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점이 산적해 있지만, 여수시의 의지가 조직위원회의 열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히 그는 호텔과 콘도 등 민자유치 부문에 대해 “행사장 밖 호텔이나 위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엑스포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정받아야만 올해 중 인허가 작업을 마치고 엑스포 전까지 건설이 완료될 수 있다”면서 “여수시와 지역사회가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시내 도로 확장 증설과 관련해, “여수로 진입하는 도로의 큰 줄기는 정해 졌으며, KTX및 고속도로·국도 17호선과 광양시서 접근하는 도로는 예산 확보와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D-3년인 다음달 12일을 전후해서 국무총리 주관의 정부지원위원회를 여수 현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마스코트 출범식 등 대규모 홍보 행사도 계획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57주년을 축하합니다.



상무병원은 “환자를 진심으로 보는 의료기관” “환자 위주의 병원” 그리고 “새 청년 의료계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